

LOCAL

2025년 6월 13일 금요일

슬로시티 중심지 완도에 국제사회 관심 집중

나주, 디지털 농업 인재 양성
청년 농업인 33명 ICT 등 교육

나주시는 최근 나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인 교육관에서 ‘2025년 나주시농업인 대학 스마트농업반’ 개강식을 열고 스마트농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에 돌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스마트농업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청년 인력의 농촌 유입을 활성화하고 기상이변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작물의 생육환경을 최적화로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에 시는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스마트 농업반을 개설하고 교육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팜 운영, 데이터 기반 작물관리, 자동화 시스템 등 실제 농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이 약 6개월간 19회에 걸쳐 80시간 진행된다.

올해 교육생은 청년 농업인을 위주로 33명으로 구성했으며 오는 11월까지 이론 교육과 현장 실습을 병행하며 스마트농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시는 앞으로도 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실용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고 미래 농업을 선도할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나주=조환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화순, 능주 들소리 민속공연
옛 모내기 풍경 보존·전승

풍년을 기원하는 능주 들소리 민속공연이 화순군 능주면에서 펼쳐진다.

12일 화순군에 따르면 능주 들소리 민속공연은 14일 오전 10시 능주면 역사관과 관영리 들녘에서 능주들소리 보존회원과 지역 주민, 향우, 관광객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화순을 대표하는 무형유산인 능주 들소리는 화순군 향토문화유산 제65호로 지정됐다. 특히 2024년 한국민속예술제에 전남도 대표로 출전해 전승상을 수상하는 등 무형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번 공연은 능주면 관영리 들녘에서 주민들이 직접 모를 심으면서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기계가 농사의 모든 것을 담당하는 현대 시대에 옛 모내기 풍경을 재현하면서 당시 불렸던 들소리를 잊지 않고 보존·전승하려는 지역민들의 의지를 담아낸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군, 19~22일 ‘국제슬로시티연맹 시장 총회’ 개최
미국·프랑스·스페인 등 11개국 참가…정책 공유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인 완도군에 국제사회 전문가들이 집결한다.

12일 완도군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슬로시티와 해양치유’를 주제로 ‘2025 국제슬로시티연맹 시장 총회’를 개최한다.

국제슬로시티연맹은 전통과 자연을 보전하면서 ‘느림의 삶’과 ‘지속 가능한 발

전’을 추구하는 목표로 33개국이 가입돼 있으며, 총회는 도시 간 슬로시티 철학과 가치, 정책 공유,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되고 있다.

이번 총회에는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11개국, 174명의 슬로시티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총회는 완도해양치유센터와 해변공원,

청산면 등에서 국가별 네트워크 동향과 이슈 발표, 회원 도시 정책 발표, 해양치유와 숲 치유 체험,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 청산도 투어 등이 진행된다.

군은 총회 개최를 통해 국제슬로시티 도시 간 협력은 물론 군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국내의 참가자 유입에 따른 관광, 숙박 등 지역 상권의 실질적인 경제적 파급효과와 해양자원을 활용해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완도군 역점 사업인 ‘해양치유’가 국제 무대에서 조명받게 될 전망이다.

또 슬로우 장터(슬로시티 특산물 판매관) 운영, 해양치유·국제해조류박람회 홍보, 버스킹 공연, 장보고 옷장 등 주민들의 국제 행사 참여로 공동체 의식 및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군은 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지난달 30일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프로그램별 준비 상황 및 통역, 교통, 홍보 등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총회 기간인 21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해변공원 일원을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할 계획이다.

신우철 군수는 “앞으로도 슬로시티 정신을 잘 실천하고 해양치유를 비롯한 완도만의 차별화된 정책, 웰니스 관광 도시 건설 등을 추진해 완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슬로시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고유의 전통과 문화, 청정 자연을 잘 보전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 받아 2007년 청산도가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됐으며, 2018년도에는 세 번째 인증과 함께 군 전역이 슬로시티로 지정됐다.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마늘 수확에 땀이 ‘송글송글’ 강진군 직면면이 최근 내거리에 위치한 마늘 수확 현장을 방문해 농가 지원에 팔을 걷었다. 면사무소 직원 10여명은 인건비 상승과 고령화 등으로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직접 마늘 수확에 나서 구슬땀을 흘렸다. 사진제공=강진군

진도 곱창김, 국제식품박람회서 ‘호응’

중국 기업과 수출 MOU
해외 시장 본격 진출

진도군은 ‘김 산업 진흥구역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해 최근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국제식품박람회(SIAL)에 동양영어조합법인과 함께 참가해 진도 곱창김 홍보 전시장을 운영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서 진도 곱창김은 다수의 중국 기업으로부터 수입 의뢰를 받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동양영어조합법인은 중국 방송사(CCTV)로부터 장인 기업으로 선정돼 인터뷰를 하며 진도 곱창김을 널리 홍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말레이시아 구매자(바이어)의 요청으로 곧 정식 계약을 할 예정이며, 중국 강소성에서 열릴 한국식품설명회에도 진도 곱창김이 홍보 제품으로 섭외되는 등



진도군은 ‘김 산업 진흥구역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해 최근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국제식품박람회(SIAL)에 동양영어조합법인과 함께 참가해 진도 곱창김 홍보 전시장을 운영했다.

국제적 인지도를 높였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진도 ‘곱창김(GOPCHANG GIM)’ 상표를 전면에 내세운 새로운 포장 디자인이 관람객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는데, 기존 김 포장지보다 두껍고 고급스러운 질감으로 인해 소비자와 구매자(바이어) 모두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며 ‘진도 곱창김’의 고급화

에 성공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이번 SIAL 박람회 참가를 계기로 진도 곱창김이 세계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경쟁력을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산물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과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목포, 전남권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

2027년 준공 목표…김 산업 특화도시 기반 마련

목포시는 최근 해양수산부의 ‘전남권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전남권 FPC는 마른김 등 전남지역 주요 수산물의 물량을 규모화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산지에서 수산물

을 매입한 후 전처리·가공·유통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복합 기반시설이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50억원(국비 45억원·지방비 45억원·자부담 60억원) 규모로, 2027년 준공을 목표로 목포시 서남권 수산종합지원단지 내에 건립될 예정이며, 시설 운영은 목

포수협이 맡는다.

시는 FPC 건립을 통해 물김의 공급과잉과 기후변화로 인한 수급 불균형을 조절하고, 고품질 마른김의 안정적인 공급과 시장 가격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대규모 마른김 가공·저장 시설 구축이 가능해졌으며, 이는 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기반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FPC가 김 산업 특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핵심기반이 되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

무안, 의정부 도서관 3곳 벤치마킹

공간 구성 등 살펴…도교육청 도서관 이설 지원

무안군은 전남도교육청 무안도서관 이설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의정부 도서관 3개소를 방문해 공간 구성과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했다고 12일 밝혔다.

벤치마킹에는 김산 군수를 비롯해 공직자 9명이 참여했으며 의정부 영어도서관, 음악도서관, 미술도서관을 찾아 공간 배치와 특화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특히 도서관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갖고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운영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무안읍에 위치한 전남교육청 무안도서관은 1990년 개관해 운영됐지만, 남악·오룡 신도시 지역의 급증하는 교육·문화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의 독서문화 플랫폼

거점 역할을 위해 남악신도시 오피스구로 이전을 추진 중이다.

김산 군수는 “선진 사례를 통해 지역민의 다양한 요구를 이설 계획에 반영하고자 현장을 방문했다”며 “무안교육지원청의 도서관 이전 추진을 적극 뒷받침해 무안도서관이 군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미래형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부지를 제공하고 건립비 지원을 추진하는 등 교육청과 협력해 도서관 이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영아 특화 도서관 등을 건의하며 지역민의 교육수요 반영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무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http://in-point.kr

1%부족함 까지도 디자인 하다.



실내인테리어 디자인 · 설계 | 실내 건축 공사업 | 3D 영상 · 모델링 / 조감도 | 옥 · 내외 사인물 디자인 / 설계 | 경관 디자인 / 설계 | 산업디자인

Design Specialist & Creative Think
디에스시티 & 크리에이티브 씽크

koita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KITA 한국디자인진흥원
KIDP KOREAN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실내건축공사업(광주서-24-나-16)

(주)디에스시티 | 광주광역시 북구 태봉로 53 (신안동, 2층)
디에스앤시티(주) |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신호로 1-1
대표전화 | 062.433.8800

Design
Specialist
&
Creative
Think